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3월 15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재 / 찬송가 32(신) 48(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찬송가 438(신) 495(구)

기도 / 박래석 집사

성경 봉독 / 창 1:26-28, 롬 8:29, 골 3:10, 엡 4:23-24 / 다같이

말씀 선포 /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찬송가 366(신) 485(구)

축복 / 임수산 안예지 / 다같이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의 겉 생김새를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 부르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2. 원죄로 인해 모든 것이 고장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지요.
3.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롬8:29, 골3:10).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바울은 새 사람이라 부르고 있지요.
4. 그 새 사람의 특징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사는 거룩함(엡4:23-24)을 사모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현재의 고통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시 143:5)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속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오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버팀목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기도를 주저하지 않았습다. 원수에게서 건져 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3,4,9,11,12). 그러나 그의 기도의 무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있었습니다(1,2,5,6,8,10). 바로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의 중심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래한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대상 16:8-10).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진실과 의,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보다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 생 명 생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 파라과이 목장 3월 21일 토요일에 조창 집사님 자택에서 모입니다. 파라과이 목장 / 조창(목자) 김정신 박래석 박송화 조은영 최명희 최상천

6. 3월 29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7. 안예지(임수산) 자매의 결혼(6월 20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복하고 귀한 주님의 가정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8. 여행 중이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광기(미숙), 조창(은영), 한정임/아름 자매 순산하셨습니다(박서준, 벤자민)

## 3월 예배 위원

안 내	조창	최명희
기 도	최명희(1) 최상천(8) 박래석(15) 조은영(22) 한규철(29)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그렇게 포기하고 안주해도 마음이 심하게 불편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멋있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공식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살만해도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